

나누는 삶 ◎ 우리 사업장, 건강검진 받는 날

韓國三菱電機

MITSUBISHI ELECTRIC



든든한 산업 서플라이어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첨단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 이러한 첨단 제품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일관된 품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최고 품질의 FA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장자동화 시스템인 FA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일본 미쓰비시전기.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은 미쓰비시전기의 한국 내 현지법인으로 국내 굴지의 자동차 및 전자회사에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에디터 · 포토 | 이민우

최첨단 자동차, 최첨단 고화질 TV, 그밖에 모든 첨단의 것들. 기술 발전의 끝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듯하다. 불과 몇 년 전 거금을 주고 산 TV.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성능은 더 향상된 제품들이 즐비하다. 기술의 발전,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울 정도로 눈부시다.

자동차와 전자산업 그리고 그 외 많은 산업분야의 발전은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첨단 소비재의 탄생에는 반드시 자본재(‘투자재’라고도 한다)의 발전도 함께 뒤따라줘야 한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생산공정’ 말이다.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몇몇 슈



페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생산라인에서 차를 제작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연간 500~6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 이는 TV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소비재가 나오기까지 묵묵히 '뒷바라지'를 마다 않는 또 다른 산업, 바로 FA(factory automation-공장자동화) 분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FA, 기업의 기술발전 견인

1924년 설립된 미쓰비시전기는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가격 대비 뛰어난 효율성을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3위 규모의 FA 전문기업이다.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Korea Co., Ltd 이하 MEAK)은 미쓰비시전기(주) 나고야제작소에서 제조한 FA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국 내 유일한 현지법인으로, PLC(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입출력 방식을 통해 기계나 공정을 제어하는 컴퓨터 기기), HMI(사용자와 컴퓨터 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일반적으로 모니터 등), SERVO(자동제어장치), 인버터 등 다양한 FA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MEAK는 국내 대형 가전업체의 설비 투자에서, PLC, HMI, 서보를 중심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인지도를 쌓아 왔고, 특히 서보는 2008년에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그만큼 PLC나 서보는 한국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말이다.

■ 판로 개척을 위해 영업활동 강화할 터

MEAK가 지금까지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동차와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한국 내 중요한 아이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평판 디스플레이 메이커들이 태양광, OLED 등 관련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고, 자동차 관련 메이커 역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2차 전지 분야로 기존 산업에서 한층 폭넓은 범위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기에 MEAK도 이에 발맞춰 판로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MEAK가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은 일본 미쓰비시전기와의 연계된 영업 활동이다. 보통 최초로 개발하는 1세대 라인은 일본 미쓰비시전기에서 라인 전체를 완전히 구축해서 갖

고 온다. 이후 2, 3세대 라인에는 MEAK를 통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공간
MEA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영업소 그리고 천안 사무소에 총 1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임 대표이사가 된 후루이 요시유키 사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EAK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 과정에서 사원들에게 지속적인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만들고 싶단다. 또 하나, 정년을 맞아 퇴사하는 그 순간 사원들이 '이 회사를 다녀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탁월해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에서 전 직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관리부 윤영규 대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서울 서부지부의 인연이 궁금한데요.

A 그 전에는 일반 방사선과에서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다 2002년부터 서울 서부지부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지요. 화곡동에 위치해 있어 거리도 가깝고 시설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대형 종합병원에 있는 의료기기가 거의 다 갖춰져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Q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무엇보다 건강기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종합검진을 받고 있어요. 할인율이 적용되어 적은 비용으로 아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죠. 100여 가지 이상의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안심도 되고요.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옮기면서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아주 높아졌어요.